

From : Kimbyung

Date : Feb. 17, 2010

Subject : FW : 법조인들은 왜 이렇게 좌경화 되었나?

법조인(法曹人)들은 왜 이렇게 좌경화(左傾化)되었나?

- 反美가 愛國이고, 親北이 愛族이라는 '똑똑한 광인(狂人)'이 너무나 많았다.

金成昱

노무현 정권 초기 法大선후배 모임에 갔더니, 나를 『수구(守舊)』라 비아냥거렸다. 대학시절 인생과 우주에 대해 고뇌(苦惱)하다 사법시험을 치르지 않았던 기자와 달리, 대부분 사법시험에 「패스」한 선후배들이다. 고급승용차 몰고 다니며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다. 大韓民國의 특혜를 거머쥔 그들이 大韓民國을 지키자는 가난한 기자를 『수구(守舊)』로 놀리다니? 어이없는 일이었다.

이 후에도 조국(祖國)의 미래를 염려하는 젊은 판사, 북한(北韓)의 해방을 고민하는 청년 검사, 국가를 파괴하는 자들에 분노하는 변호사를 거의 보질 못했다.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아니면 이기주의자, 기회주의자, 웰빙(wellbeing)주의자들이었다.

반미(反美)가 애국(愛國)이고, 친북(親北)이 애족(愛族)이라는 「똑똑한 광인(狂人)」이 너무나 많았다. 지식인의 좌경화가 심각하다지만, 그 중 법조계(法曹界)가 가장 심한 게 아닌가싶었다. 이들이 금배지 달고 장차관(張次官) 하는,

이 나라 최고(最高)의 엘리트집단인 걸 생각하면, 나라의 앞날이 캄캄해졌다.

최근 잇따른 사법부 좌(左)편향 판결은 지난 20 여 년 목격해 온 좌(左)편향 교수와 법대생, 연수원생, 법조인들이 만들어 낸 필연적 결론이다. 너무나 많은 것을 이뤄낸 기성세대 최악의 失手-최대의 弱點, 교육실패의 결과물이 작금의 사법부이다. 출세와 승리의 기술(skill)은 가르쳐 법대를 보내고 고시를 붙였지만, 국가(國家)의 혼(魂)이 빠진 기계인간을 만들어 버린 셈이다.

대 한민국에서 가장 오른쪽에 가 있어야 할 공안(公安)검사들마저 민노총, 민노당, 전교조 세력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연수원생들의 극렬한 반미(反美) 발언을 들으며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 나라 엘리트 교육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사 법부 좌경화의 진앙(震央)은 고시(考試)에 있다. 원인이 분명한 만큼 해법도 명료하다. 고시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헌법(憲法)에 적대한 자들은 합격을 취소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을 테스트해야 한다. 국가관(國家觀)을 검증해야 한다.

국내 법대 교수는 독일서 좌파(左派)법학을 배워 온 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시제도마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2050 년 한국의 미래는 「필리핀」 꼴이 될지 모른다.

[2010-01-19, 01:40]

lexrota 2010-01-19 오전 10:07

그들이 치르는 기능적 법률지식에 비하여, 3 권분립에서 너무 과대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지성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얇은 학문수준인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한마디 2010-01-19 오전 8:28

민노총, 민노당, 전교조... 이들 뒤에 우리 家族制度를 廢止시키는데 輕舉妄動했던 좌의 빨갱이 여성단체가 있다는 것을 죽어도 말할 줄 모르지?

kang59 2010-01-19 오전 6:30

정말 잘 보셨습니다.

한국법학과 법문화의 황폐함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 수 있죠.

한글날 즈음이 되면 일본식 법률용어의 문제를 지적하곤 합니다.

문 제는 용어가 아니라, 문장입니다. 완전히 일본어 번역문, 그것도 70 년대 이전의 일본어 문장을 기계적으로 베껴 쓰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구절양장의 長文, 원칙을

설명하며, 문장 중간에 예외를 끼워넣는 기괴함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사건"판례 전문이 신문전면을 채웠을 때도 고작 5 문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이를 문제삼지 않는 풍토입니다. 만약 초등학교 작문시간에 이런 문장을 쓰는 아이가 있다면 교사는 그 아이의 지능을 의심할 것 입니다.

변호사출신의 사회유명인사가 쓴 수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프랑스 법전이다"란 빅토르 위고의 말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왜 한국의 법조문과 판례문장과 비교하지 않는가?라며 혼자 웃곤 합니다. 법학교수나 법조계가 이런 고질을 문제삼지 않는 건 바로 無知, 無敎養 탓입니다.

세계 언어는 대부분 주어 술어 목적어의 어순입니다. 아다시피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술어의 순서죠. 의사소통의 가장 핵심인 긍정부정이 문장의 맨뒤에 나오는 점에서 한국어는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옛부터 "조선놈 말은 ?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말도 있었지만요. 저가 蠻勇을 발휘하여 파악한 원인은 개인의식의 미성숙입니다. 집단주의죠.윗전에 보고드리면서 顏色을 살피다가 끝에서 바라는 쪽으로 짝 꼬리를 감출 수 있는...

바쁜 현대생활도 그렇고, 언어의 태생적 구조상으로도 우리말 문장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아니, 짧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소통이 명확해지겠죠. 법원 판결문이 짧아야 하는 건 當爲입니다.

젊은 변호사 친구들과 대화서 경악을 금치 못하셨다고 하셨죠?

그 친구들, 인간이 아닌 법조 로봇으로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대학 1 학년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하느라 교양서적 한권 읽지 않고 2,30 대를 보낸 사람들 입니다. 같은 한국말을 한다고 다 한국인 인가요?

餘談으로,관상이야길 해 볼까요? 교양인은 벌써 얼굴에 文氣가 흐르지요.

한번 대법관들의 사진을 들여다 보십시오.

모조리 "머슴 얼굴" 입니다. 사각형의 무표정한 얼굴에 입은 양끝이 축쳐진 한일자, 재미있는 건 전부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점입니다.

어찌다 정초부터 남의 흉을 실컷 보았습니다.

김성욱기자님.

올해도 건강하시고, 큰 업적을 이루실 것을 기원합니다. 이만.

